

세계도시동향

헤드라인뉴스	1	빅데이터 시스템 활용해 깨끗한 거리 만든다	로스앤젤레스
산업·경제	2	'2036년까지 일자리 1백만 개 창출' 전략보고서 발표	뉴사우스웨일즈
사회·복지	5	시민단체와 연계해 건강 포인트 사업 시행	교토
환경·안전	7	살수시설·차양 등 '쿨 스팟' 설치비 50% 보조	도쿄
	9	모든 신축건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	밴쿠버
도시계획·주택	11	9월부터 임대대행 전담제도 활성화 보조금 지원	교토
뉴스인사이드	13	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	뉴욕 외

빅데이터 시스템 활용해 깨끗한 거리 만든다

4만 개 거리·골목 3개 등급 구분…쓰레기, 불법투기 등 감시

미국 로스앤젤레스市 / 환경·안전

- 미국 로스앤젤레스(LA)市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 거리의 위생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‘깨끗한 거리 계획(Clean Streets Initiative)’을 수립
 - 이 계획은 시의 거리청소 사업 중 하나이며, 시는 이 사업에 910만 달러(102억 원)를 투자함.
- 주요 내용
 - LA시 위생국은 LA 경찰국이 범죄 예방과 경찰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발한 CleanStat 시스템을 토대로 쓰레기, 잡초, 불법투기 등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빅데이터 시스템인 CleanStat 시스템을 개발
 - 시는 CleanStat 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분석해 쓰레기통 추가 설치, 환경미화원 파견 등의 정책을 추진
 - LA 시내 약 4만 개의 거리와 골목을 1등급(Clean), 2등급(Somewhat Clean), 3등급(Not Clean)으로 구분·관리하는 ‘깨끗한 거리 지표(Clean Streets Index)’도 함께 개발
 - 거리 등급은 쓰레기, 잡초, 방치된 대형물건, 불법투기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분기마다 업데이트함.
 - 2016년 3분기 현재 LA 시내 전체 도로 중 1등급은 61%, 2등급은 35%, 즉각적인 관리가 필요한 3등급은 4%임.
 - 거리 단위로 분석·파악된 정보는 다시 행정집행 단위인 그리드(Grid)로 분석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

<http://www.cleanstreetsla.org/>

<http://www.cleanstreetsla.org/cleanstat/>

산업·경제

‘2036년까지 일자리 1백만 개 창출’ 전략보고서 발표

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/ 산업·경제

- 호주 뉴사우스웨일즈(NSW)주는 2036년까지 1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전략보고서인 ‘미래를 위한 일자리(Jobs for the Future)’를 발표
 - 보고서에서 제시한 미래 일자리를 위한 4가지 전략
 -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분야 육성
 - 고용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회의 문호개방
 - 지식경제를 위한 기술 향상
 - 경제활동 참여율 확대
 - NSW주는 4가지 전략에 따라 우선적으로 향후 5년에 걸쳐 실행할 19개의 실행 계획도 제시
- 배경 및 목적
 - 지난 20년간 NSW주의 고용은 매우 안정적으로 증가
 - 1996년~2015년 사이에 92만여 개의 신규고용 창출
 - 현재 371만 명이 유급노동에 참여
 - 같은 기간 고용성장률은 인구성장률을 초과
 -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주의 고용 상태는 매우 양호
 - 최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고용전략이 필요
- 미래 일자리를 위한 4가지 전략
 -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분야 육성
 - 목표: 2036년까지 무역분야의 고용을 현재 29%에서 40%로 확대
 - 배경: 국내소비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생산이 전체 고용의 70~80%를 차지

- 주요 내용
 -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고급일자리 육성
 - 분야별로 발전 가능성이 큰 거점지역 선정 및 표적화된 지원
- 고용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회의 문호개방
 - 목표: 2036년까지 고용창출력이 높은 가젤기업의 비율을 현재 3.2%에서 5%로 확대
 - 배경: 2008년~2014년 사이 고성장 중소기업에서 1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
 - 주요 내용
 - 가젤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문화, 창업생태계 등을 구축
 - 초기 단계부터 자금지원을 촉진
- 지식경제를 위한 기술 향상
 - 목표: 2036년까지 지식집약적 고용비율을 현재 48%에서 61%로 확대
 - 주요 내용
 - 학교나 직업훈련소에서 성과중심적(Outcomes-based) 디지털 기술교육 강화
- 경제활동 참여율 확대
 - 목표
 - 2036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현재 11%에서 24%로 확대
 - 부양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현재 67%에서 75%로 확대
 - 주요 내용
 - 장·노년층의 고용 장애물 축소
 -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
- 일자리 전략 실행 및 재정지원
 - 주정부는 일자리 전략 실행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총 1억 9천만 호주달러(1천 6백억 원)를 배정

- 주요 지원분야
 - 가젤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 호주달러(422억 원)까지는 정부가 대출보증을 해주고, 별도로 350만 호주달러(30억 원)는 직접 대출용도로 배정
 - 스타트업이 가젤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(Accellerators) 네트워크 형성에 1천만 호주달러(85억 원)를 배정하고, 스타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3백만 호주달러(25억 3천만 원)의 예산 확보
 - 외곽지역에 있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3천만 호주달러(255억 원)를 배정
 - 대규모 국제기업의 본사가 NSW주로 이전할 수 있도록 3천만 호주달러(255억 원)를 배정

- 향후 계획
 - 주정부는 고용을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‘미래 일자리 전략’을 추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

 - 세부 산업분야는 담당 부서를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
 - 주정부는 우선 주정부 무역수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과 유학 분야를 담당하는 관광청(Destination NSW)과 유학청(Study NSW)에 일자리 전략책임자를 임명하고 산업별로 세부목표와 계획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함.

<https://www.nsw.gov.au/media-releases-premier/nsw-targets-one-million-new-jobs-future>

<http://www.sadig.org.au/imagesDB/news/Jobs-for-the-Future-report.pdf>

사회·복지

시민단체와 연계해 건강 포인트 사업 시행

일본 교토市 / 사회·복지

- 일본 교토市는 시민이 주체가 된 건강한 마을 만들기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‘건강, 장수의 마을·교토시민회의(健康長寿のまち・京都市民会議)’와 연계하여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고 ‘건강 포인트 사업(健康長寿のまち・京都・いきいきポイント)’을 2016년 8월부터 시행
- ‘건강 포인트’ 사업
 - 개요
 - 교토시에 거주, 재직, 재학 중인 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건강 관련 활동에 포인트를 부여하는 프로그램
 - 50포인트 이상을 받으면 추첨을 통해 기업 등으로부터 건강 관련 상품 등을 선물로 받을 기회를 제공



‘포인트 수첩’

- 주요 내용
 - 구청 등에서 배포하는 ‘포인트 수첩’에 참가자가 목표로 정한 매일매일의 건강을 위한 습관, 각종 건강검진, 건강 관련 이벤트 등의 참가 성과를 기록하고 ‘건강 포인트’를 받음.
 - 포인트 제도
 - 매일 포인트: 자신이 설정한 하루 치 목표를 달성하면 1포인트 획득
예) 하루 8천 걸음 이상 걷기, 균형 있는 식사 등
 - 검진 포인트: 참가자가 건강진단 등을 받으면 10포인트 획득
예) 특정 건강검진, 정기 건강진단 등
 - 외출 포인트: 교토시나 ‘교토시민회의’가 주최하는 각종 건강 관련 이벤트 등에 참여하거나 건강 관련 시설을 이용하면 5포인트 획득
예) 걷기 행사나 건강교실 참가, 박물관, 동물원 등의 시설 이용
- 포털 사이트의 주요 내용
 - ‘건강, 장수의 마을·교토’의 이념과 활동을 소개
 - ‘포인트 사업’ 소개
 - 제도, 응모방법, 선물 목록, Q&A 등
 - ‘건강한 마을 만들기’에 관한 정보 공유

<http://www.city.kyoto.lg.jp/hokenfukushi/page/0000204327.html>

<http://www.city.kyoto.lg.jp/hokenfukushi/cmsfiles/contents/0000204/204327/potaru.pdf>

<http://www.city.kyoto.lg.jp/hokenfukushi/cmsfiles/contents/0000204/204327/kouhousiryou.pdf>

환경·안전

살수시설·차양 등 ‘쿨 스팟’ 설치비 50% 보조

일본 도쿄都 / 환경·안전

- 일본 도쿄都는 기후변화 등으로 고온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2015년에는 ‘도쿄도 폭염 대책 추진회의’를 설치하였고, 2016년에는 ‘쿨 스팟(Cool Spot) 설치 지원 사업’과 ‘폭염대책에 관한 선진기술 실증사업’을 시행

- 배경
 - 2015년 도쿄도의 낮 최고기온이 35℃를 넘는 무더위(猛暑日) 지속일수가 8일을 넘어 종래의 기록(4일)을 경신
 -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열사병에 의한 구급 운송자 수는 약 5천 명으로, 2010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
 - 도쿄도의 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간 3.2℃ 상승
 - 이는 일본 내에서 도시화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15개 지역의 평균 기온 상승 값인 1.4℃를 크게 상회

- 도쿄도 폭염대책 추진회의 설치
 - 도쿄도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하여 무더위 방지 대책과 열사병 예방에 초점을 맞춰 담당 부서 간의 협력 강화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회의를 설치

- 쿨 스팟 설치 지원 사업
 - 도쿄도는 무더위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쿨 스팟을 도내 법인이나 개인 등이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
 - 보조금은 최대 500만 엔(5천5백만 원)의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50%를 보조

 - 보조비 지원 대상시설
 -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도내의 시설이나 공간
 - 통행이나 휴식 등을 취할 때 더위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

- 대상시설은 드라이 타입 미스트, 살수시설, 차양(遮陽), 차열성·투수성 도로 포장 및 녹화시설 등
- 쿨 스팟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드라이 타입 미스트 설비를 설치할 때 도청 수도권과 연계하여 수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제공
- 폭염대책에 관한 선진기술 실증사업
 - 도쿄도는 폭염대책 기술의 보급 및 촉진을 위해 더위를 완화시키는 선진기술을 반영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
 - 폭염대책에 관한 선진기술 실증사업 공모
 - 2016년 6월 사업자를 모집하여 2회(8월과 9월)에 걸쳐 시설을 설치할 예정
 - 도쿄도는 설치된 시설에 대한 기온 및 습도 효과, 열사병 지수 등을 측정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효과를 검증할 예정
 - 사업자는 실증 결과와 사업자명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음.

<http://www.kankyo.metro.tokyo.jp/climate/other/countermeasure/index.html>

<http://www.kankyo.metro.tokyo.jp/climate/attachement/heathousin.pdf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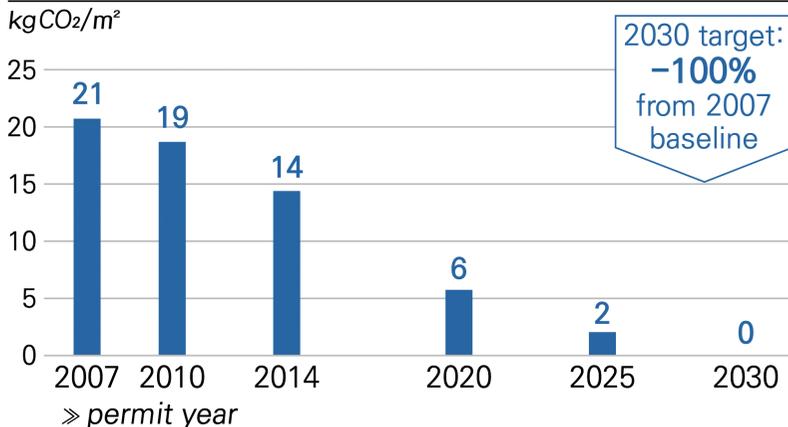
http://www.kankyo.metro.tokyo.jp/climate/attachement/heatguideline_sum.pdf

모든 신축건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

캐나다 밴쿠버시 / 환경·안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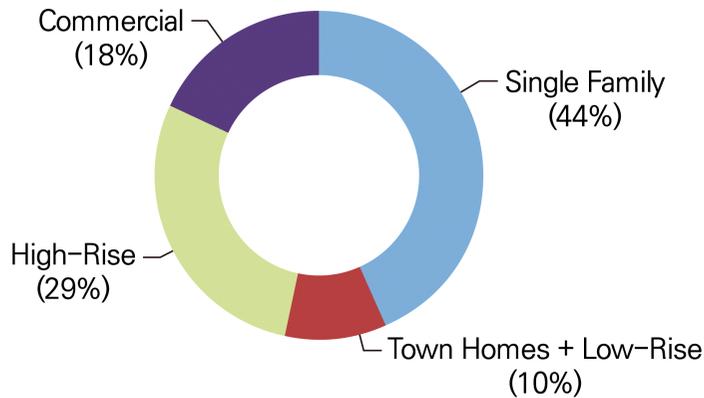
- 캐나다 밴쿠버시는 2030년까지 모든 신축 건물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도록 하는 ‘온실가스 무배출 건축물 계획(Zero Emissions Building Plan)’을 수립하여 2016년 7월에 발표
- 배경
 - 시는 2004년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규제를 위해 ‘그린빌딩전략(Green Building Strategy)’을 수립한 이래 2015년 건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바꾸도록 하는 ‘재생가능한 도시전략(Renewable City Strategy)’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
 - 2025년까지 도시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7년 대비 90% 이상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 중

Annual GHG Emissions of New Buildings



2007년 대비 밴쿠버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치

2020 Built Area by Building Type



2020년 기준 밴쿠버시 건축물 유형별 비율

- 목표
 - 실내 대기질 환경 개선
 - 장기적으로 건물의 양호한 상태 유지 및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경제성 확보
 - 2050년까지 기존 건물에서도 재생에너지 사용

- 주요 내용
 - 배출제한: 건물의 유형에 따라 온실가스와 열에너지의 범위를 설정하고 향후 이를 무배출로 전환
 - 리더십: 시 소유 건물이 온실가스 무배출 건물임을 입증하는 리더십이 필요
 - 촉매작용: 민간 개발업자들이 온실가스 무배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적절한 틀을 개발
 - 역량 강화(Capacity Building): 온실가스 무배출에 필요한 장벽 제거, 지식 공유 및 기술 개발을 쉽게 하는 센터(Centre of Zero Emission Building Excellence) 설립

- 기타사항
 - 이번 계획은 단기간에 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3~4년 후에 후속 계획을 수립하거나 현재의 계획을 수정·보완하는 형식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

<http://council.vancouver.ca/20160712/documents/rr2.pdf>

도시계획·주택

9월부터 임대대행 전담제도 활성화 보조금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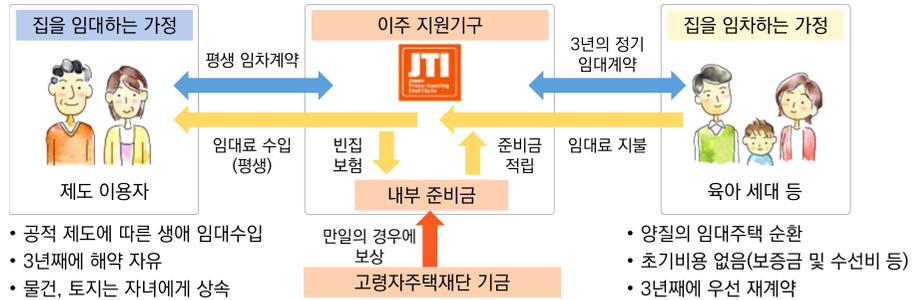
일본 교토市 / 도시계획·주택

- 일본 교토市는 시의 빈집 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'사단법인 이주지원기구(一般社団法人 移住・住みかえ支援機構)'와 연계하여 '교토시 마이홈 임대제도'와 '임대대행 전담제도'를 시행하고 있으며, '임대대행 전담제도'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'임대대행 전담제도 활용 촉진 보조금' 제도를 시행

- 마이홈 임대제도
 - '이주지원기구'가 주택 소유자의 집을 전대하여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제도
 - 대상은 5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
 - 전대는 종신형과 기간 지정형이 있음.

 - 임대인이 받는 혜택
 - 임대료는 시장보다 다소 낮지만,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도 '이주지원기구'를 통해 임대료를 받음.
 - 첫 번째 입주자가 결정된 이후에 공실이 발생해도 일정한 임대료(일반 임대료 하한가의 85% 정도)를 보장받음.
 - 3년마다 계약이 만료되므로 집주인은 안심하고 임대를 할 수 있음.

- 일본은 세입자의 권한이 강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퇴거를 요구하기 어려움.
 - 일반 임대계약과는 달리 '이주지원기구'가 전대하여 임차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입주자가 직접 만나는 일이 없으며 집세 미납 등으로 입주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없음.



교토시 마이홈 임대제도의 흐름도

- 임대대행 전담제도
 - ‘이주지원기구’가 빈집을 빌려 내진 및 개보수 공사를 한 후 10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전대하는 제도
- ‘임대제도 전담제도 활용 촉진 보조금’의 지원 내역
 - 교토시가 부동산 임대거래를 통한 빈집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
 - 시는 부동산 사업자가 ‘이주지원기구’ 등록에 필요한 비용 중 최대 12만 엔 (132만 원)을 보조
 - 지원 대상
 - 교토시내에 영업 사무소가 있는 부동산 거래업자
 - ‘이주지원기구’로부터 인정을 받은 협찬사업자
 - ‘이주지원기구’의 협찬사업자를 2년 이상 유지할 것을 교토시에 약속한 사업자

<https://www.jt-i.jp/lease/>

<http://www.surugabank.co.jp/surugabank/kojin/service/kariru/home/lineup/jti.html>

<http://www.city.kyoto.lg.jp/tokei/page/0000204475.html>

<http://www.city.kyoto.lg.jp/tokei/cmsfiles/contents/0000204/204475/youkou.pdf>

언론보도 분석을 통한 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

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

- 미국 뉴욕市
 - 영국 런던市
 - 중국 상하이市
-

세계 주요 도시 정책 이슈와 동향

뉴욕

- 경찰·주민 협력해 치안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 2016.08.02
- 뉴욕시는 도시안전과 치안 유지를 위한 치안 프로그램(Neighborhood Coordination Officers)을 발표함. 이는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프로그램으로,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 간의 관계 개선을 기대함.

<http://www1.nyc.gov/office-of-the-mayor/news/646-16/mayor-de-blasio-commissioner-bratton-expansion-neighborhood-policing-program-51>

- 공공주택 입구·주차장에 외부 조명 시스템 설치 2016.08.04
- 뉴욕시는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, 거주자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 입구와 주차지역 등에 외부 조명 시스템을 설치함. 또한 공공주택의 지속적인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보안카메라도 설치할 계획임.

<http://www1.nyc.gov/office-of-the-mayor/news/653-16/delivering-public-housing-mayor-de-blasio-completion-358-new-safety-lights-and>

런던

- 버스정류장·간선도로 전광판에 대기오염 경보 표시 2016.08.04
- 런던시는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시민 요구를 수용해 런던시 내 버스정류장, 지하철역 및 간선도로의 전광판에 대기오염 경보를 표시하기로 함. 대기오염도가 높은 전날에서 당일까지 대기오염 경보가 전광판에 표시되며, 경고 수준과 이에 따른 행동지침 등을 함께 제공함.

<https://www.london.gov.uk/press-releases/mayoral/air-quality-alerts-warn-londoners-about-pollution>

- 범죄 피해자 지원 '회복적 사법 서비스' 제공 2016.08.26
- 런던시는 범죄 재발생률을 줄이고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약 19억 원을 지원하는 등 '회복적 사법 서비스'를 제공하기로 함. 시는 범죄 피해자 회복에 대한

시민인식을 높이고, 형사 사법 절차 보완 등 범죄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.

<https://www.london.gov.uk/press-releases/mayoral/mayor-launches-13m-restorative-justice-service>

상 하 이

- 청년 취업에 도움 주는 면접기술 강연 2016.08.13
- 상하이시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자 면접기술 강연을 시행함. 시는 실업자의 구직을 돕기 위해 구직자와 고용주 등이 직업 박람회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고용주와 실직자를 연계시켜 상하이시 청년의 구직을 촉진함.

<http://www.shanghai.gov.cn/shanghai/node27118/node27818/u22ai83750.html>

- 창닝지구 내 외국인·경찰 안전팀 구성해 지역순찰하고 교통봉사 2016.08.13
- 상하이시는 창닝지구 내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내 경찰과 거주 외국인 봉사자가 함께 지역을 순찰하는 안전팀을 구성함. 지역 순찰뿐 아니라 교통 자원봉사도 함께 시행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편의 개선을 도모함.

<http://www.shanghai.gov.cn/shanghai/node27118/node27818/u22ai83744.html>

- 선박 청소 등 대기오염 방지 조치로 대기 질 개선 2016.08.20
- 상하이시는 선박을 청소하고,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제어하는 등의 대기오염 방지 조치로 대기의 질을 개선함. 대기오염 물질인 미세먼지(PM10)는 6.8%, 이산화황(SO₂)은 5.9%, 이산화질소(NO₂)는 4.2% 등으로 세계보건기구(WTO) 기준치인 10%보다 낮아짐.

<http://www.shanghai.gov.cn/shanghai/node27118/node27818/u22ai83831.html>

「세계 주요 도시 정책이슈와 동향」은 뉴욕, 런던, 싱가포르, 상하이 등 세계 주요 대도시 보도자료에 발표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. 서울시 정책 개발 및 이슈 발굴에 참고할 수 있도록, 정책의 선도성을 지니거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췌하였습니다.

편집담당자 : 기획조정본부 심아름 연구원